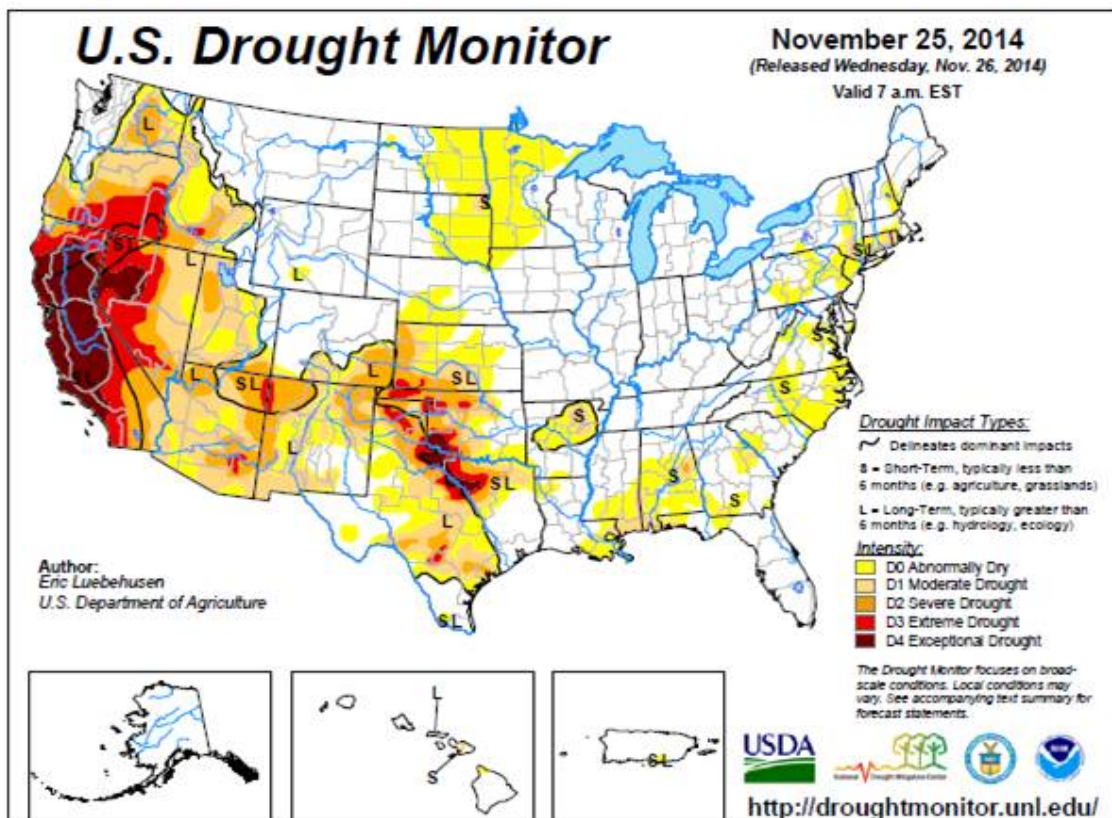


12월 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1, No. 48)

□ 미국 기후 현황(11/23~11/29)



많은 지역에서 추운 날씨가 완화되었지만, 미국 북중부 지역에서는 추운 날씨가 지속되었다. 주간 기온은 북부 내륙산악 서부지역의 경우 평년대비 10°F 이상 높았지만, 미네소타 북서부 지역과 북부 다코타 지역의 경우 평년대비 적어도 10°F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초반 미국 동부의 1/3의 지역에 비가 내렸고, 중서부에서는 비가 눈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또한, 추수감사절 이전 형성된 폭풍은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하였으며, 동부지역에서는 눈이 내리기도 하였다. 주간 총 강수량은 남동부 지역에서 2인치 이상 내린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가을 밀 파종과 면화와 대두의 수확을 위한 야외활동은 다소 방해를 받았다. 서부지역으로 갈수록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중부지역에 팽배하게 나타났으며, 심한 기온의 변화를 동반하였다. 가을밀을 보호해주는 눈은 북부 대평원 지역에 한정되어 뒤덮였으며, 면화의 수확과 다른 후기 야외 농작업은 남부 대평원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북부지역에서 강수량이 발생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록키산맥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린(국지적으로 4인치

이상을 기록) 곳은 태평양 북서부와 북부 록키산맥 지역이었다. 북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후반 비가 내려 기록적인 가뭄이 완화되었다.

□ 농업 현황 요약(11/24~11/30)

미국 서부와 북부 대서양 연안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기록되었다. 미주리 강에서는 추운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미네소타와 다코타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9°F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하였다. 남동부와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서는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였지만, 전국적으로 강수량 수준은 대체로 평년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 세계 기후 현황(11/23~11/29)

■ 유럽: 남부와 서부 유럽에서 비가 내린 것과는 대조적으로 동부 재배지역의 경우 건조하고 서늘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북부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고기압이 형성되었으며, 서부지역에서는 폭풍이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적당하거나 많은 양의 비(10-25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북부 프랑스와 영국 남부지역에서 가을밀의 충분한 수분을 저장하도록 하였다.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와 같은 남부지역으로 갈수록(25-100mm)의 비가 내렸으며, 가을밀과 보리의 수분을 유지하기 좋은 조건을 제공하였고 여름 곡물의 관개에 필요한 수분 저장보유량을 충분히 충족시켰다. 비와 산간에 내린 눈(5-35mm)은 중부와 북부 이탈리아 지역에 지속되었으며, 가을밀의 토양 수분을 유지하게 하였으며, 관개 보유량을 향상시켜 봄철 수량 전망을 밝게 하였다. 한편, 대체로 건조하지만 서늘한 날씨가 동부 유럽에 팽배하였으며, 주간 평균 기온은 5°C 미만으로 기록되어, 독일에서 폴란드와 발칸지역에 이르기까지 작물들이 동면에 접근하였거나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소련(서부): 춥고 눈이 오는 날씨가 겨울 작물과 유채에 동면을 위한 좋은 조건을 유지하게 하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남부 주요 가을밀 재배지역에서는 평년대비 기온이 평균 5°C 보다 낮았으며, 작물들이 동면에 진입하였거나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또한, 주말경에는 새로운 강설량(5-20cm)이 기록되어 잠재적으로 혹독하게 추운 날씨로 인한 가을밀의 절연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건조한 가을날씨로 인해 작물의 수립에는 나쁜 상태였으나 북부지역으로 갈수록, 벨라루스와 북부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중부지역의 겨울 곡물 역시 동면상태에 진입하였다. 덧붙여, 러시아 볼가강 사이 접경지역을 따라 적설량이 없었으므로 겨울 작물들이 지난주 혹독한 추위(영하 20-15°C)에 노출되었다.

■ 호주: 서부 호주에서는 넓은 지역에 소나기(5-25mm)가 내려, 밀과 보리, 카놀라의 수확이 지연되었으며, 남부지역에서는 일부 작물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다. 한편, 호주 남부와 북서부 빅토리아 지역의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팽배하였으며 겨울 작물의 수확은 지연되는 일 없이 진행되었다. 동부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에 내린 비(5-25mm)는 겨울 곡물과 유채의 수확을 포함한 야외 농작업을 지연시켰다. 유사하게도, 북부 뉴사우스웨일스 지역과 남부 퀸즐랜드 지역에도 넓은 지역에 내린 비(5-25mm)로 인해 야외 농작업에 방해가 받았으나, 이로 인해 겨울 작물의 수확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수확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호주 동부지역에서 기록된 강수량은 농업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작물의 발아, 출수, 수립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양을 제공하였다. 추운 날씨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렸다. 주 초반에는

더운 날씨로 인해 연약 작물에 스트레스를 주었으나, 기온이 평년대비 평균 3-5°C가 높았으며, 최고 기온은 30°C 후반에서 40°C 초반을 기록하였다. 주 중반에는 더욱 계절적으로 적합한 날씨가 팽배하였으며, 고온으로 인해 여름작물의 생육에 가중되었던 스트레스가 완화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 아르헨티나: 넓은 지역에 국지적으로 내린 비는 겨울 곡물과 새롭게 파종된 여름작물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게 하였으나 야외 농작업은 며칠간 지연되었다. 북동부 면화벨트(북부 Santa Fe와 남부 Chaco와 Formosa)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폭우가 내렸으며(국지적으로 100mm가 넘는 곳도 있음), 소량의 비(5-25mm)는 서부 재배지역(특히, Santiago del Estero와 Salta)에 내렸다. 아르헨티나 중부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넓은 지역에 내렸으며, 강수량의 변동이 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체로 건조한 날씨를 파라나 강 계곡(북부 Buenos Aires와 남부 Santa Fe와 Entre Rios)에서 재배중인 옥수수과 대두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폭우가 주말에 내렸으며, 야외 농작업을 하기 좋은 조건이 종료되었다.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Buenos Aires에서는 낮 최고 기온은 20°C 중반, 북부지역은 30°C 초반인 것으로 기록되었다. 11월 27일 기준,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해바라기 파종은 95%p가 진행되었고, 전년동기 대비 97%p였던 것과 비교가 된다. 옥수수 파종은 올해 48%p로 전년대비 비슷할 수준이었으며, 대두의 파종은 48%p로 전년대비 6%p가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 브라질: 브라질 중부에서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으며, 대두와 기타 여름작물의 수확전망을 밝게 하였다. Mato Grosso와 Mato Grosso do Sul 및 동부에서 서부 Bahia와 Minas Gerais 지역에서는 총 강수량이 50-100mm를 기록하였다. 특히, 최근 산발적으로 내린 강수량에 뒤이어 수분은 사탕수수와 커피 주요 생산지역(Sao Paulo와 Minas Gerais)에 시기적절하게 내렸다.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 주간 강수량은 평년대비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 최고기온은 30°C에 육박하였다. Mato Grosso와 Tocantins은 전통적으로 기온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소량의 비(10-50mm)가 내린 남부 브라질에서는 옥수수와 대두의 발아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야외 농작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되었다. 브라질에서 발간되는 보고서에 따르면, Rio Grande do Sul 지역의 밀 수확은 95%가 완료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옥수수와 대두의 경우 수확률은 각각 85%와 60%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따뜻하고 계절적으로 건조한 날씨는 북동부지역에서 사탕수수와 기타 계절 작물의 수확을 지지하였다.